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3차 공식협상(4.12.(일) ~ 17.(금) 개최

- 상품 양허, 서비스, 원산지, 경제협력 등 13개 분과 협상 -

대내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 8위 인구대국이자 서남아의 핵심 잠재시장인 방글라데시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제3차 공식 협상이 4.12(일)~17(금) 서울에서 개최된다.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기존 FTA 구조와 개방수준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의 통상협정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박근오 통상협정 정책관과 방글라데시 측 아예샤 아크터(Ayesha Akther) 상공부 대외무역협정실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24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두 차례의 공식 협상을 통해 분과별로 전반적인 입장을 교환하고 주요 쟁점을 확인하였다. 이번 제3차 협상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상품양허, 서비스, 원산지 등 13개 분야에서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협정문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혀 나갈 계획이다.

지난 3월 카메룬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 계기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방글라데시 칸다카르(Khandaker)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1.7억명의 거대 시장을 보유한 방글라데시와 CEP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빠르게 성장하는 유망 신흥시장인 방글라데시와의 CEPA 체결은 우리 기업의 서남아 시장 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상협정교섭관	책임자	과 장	손호영 (044-203-5830)
	통상협정협상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지 (044-203-5837)